

민주연구원 “한국 민주주의의 회복, 세계적 민주주의 퇴조경향 뚜렷” 정책브리핑 발간

-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(원장 이재영)은 3월 31일(화), “한국 민주주의의 회복, 세계적 민주주의 퇴조경향 뚜렷: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(V-Dem) 2026년 보고서 분석”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.
- 이재영 원장은 “글로벌 차원의 민주주의가 퇴조하는 가운데, 한국의 민주주의가 윤석열 내란을 딛고 민주주의 지수를 회복한 데 큰 의미가 있다”고 밝혔다. 이어 “이재명 정부가 ‘빛의혁명’을 통해 집권한 만큼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해야 한다”고 제안했다.
- 이번 정책브리핑은 <V-Dem 민주주의 보고서 2026: 민주주의 시대의 소멸?>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서,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상승 추이와 보고서에서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‘미국의 독재화’ 경향을 소개하고 있다.
- 한국 2025년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179개 국가 중 22위를 차지함으로써, 윤석열정부에서 상실했던 ‘자유민주주의 국가’ 지위 회복
-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 회복은 표현, 언론의 자유도가 상승하고, 숙의민주주의 지수가 오른 데 따른 것으로, ‘입틀막’의 상징되었던 윤석열정부의 언론자유도가 이전 민주정부 시기로 복원되었다는 것을 의미
- 특히 공공선(공익)에 기초한 정부정책결정과 정치엘리트의 공공정책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을 평가받아 숙의민주주의는 조사대상 179개 국가 중 7위로 도약
- 더 성숙한 숙의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참여를 골간으로 하는 ‘숙의개헌’의 필요성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‘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’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

/끝.